

# 효천

6학년

## 테마독서 "인권"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 탐구생활> 이기규 / 파란자전거

사람이 사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은 의식주처럼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인권을 제대로 알아야 자신의 권리는 물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 <인간답게 평등하게 그래서 인권> 김찬곤 / 사계절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인권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꾸준히 접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인권 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나서왔지요. 난민, 성소수자, 빈곤, 문화적 다양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는 반드시 인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효천

6학년

## 테마독서 "인권"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 〈스토의 인권 교실〉 신연호 / 시공주니어

글쓰기 대표 자리를 뺏겨 기분이 안 좋은 재인이 앞에 나타난 의문의 비행기! 비행기에는 '수상한 인문학 교실'이라고 쓰여있어요. 조종사는 재인을 미국 작가 스토 부인에게 데려다준다고 합니다. 반신반의하던 재인은 비행기를 타고 아직 노예제도가 만연하던 시대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에서 스토 부인과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과 맞닥드린 재인은 인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 〈혐오와 인권〉 장덕현 / 풀빛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오이를 싫어해.”라고 하지 “오이를 혐오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어떨 때 혐오라는 말을 쓸까요? 혐오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와 행동에 관련해서 쓰곤 합니다. 그렇다면 혐오와 인권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 효천

6학년

## 테마독서 "인권"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 <꼬불꼬불나라의 인권이야기>

서해경 / 풀빛미디어

꼬불꼬불나라의 수염왕은 왕수염 회사를 경영하다가 잘못을 저질러 무지개 복지관에서 20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수염왕은 그곳에서 장애가 있는 친구, 다문화 가정의 친구,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르신 등을 만나게 돼요. 복지관 친구들과 가까워지면서 편견의 시선이 아닌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응원하게 되는 수염왕의 이야기를 알아보러 무지개 복지관으로 떠나봐요.



"같은 책을 읽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이어 주는 끈이다."

- 에머슨 -